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 분리불안 심리적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Parents of
Korean Adolescent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박성연(Seong Yeon Park)¹⁾

이은경(Eun Gyoung Lee)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plic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DAPC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 (Soenens et al., 2006)] in parents of Korean adolescents. Participants included 289 adolescents who responded to DAPC items regarding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s. Two factors comprising 17 items were identified and labeled as "achievement 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separation-anxious psychological contro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provided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DAPC through construct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cross both sex of parents and adolescents. The psychometric properties indicated that DAPC could be useful in studying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s toward their adolescent children.

Key Words :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청소년(adolescents).

* 본 연구는 200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연구임.

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협동과정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 mail : psy@ewha.ac.kr

I. 서 론

지난 40여년동안 발달학자들은 부모자녀관계와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양육유형이나 양육차원 등을 제안함으로써 양육행동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대표적인 학자인 Becker(1964)는 애정/적대, 제한/허용, 걱정어린 관여(anxious emotional involvement)/무관심(calm detachment)의 세 가지 대표적인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였고, Schaefer(1965)는 수용/거부, 심리적 통제/심리적 자율, 엄격한 통제/느슨한 통제 등 세 가지 양육행동 차원을 확인하였다. 또한 Baumrind(1971)는 수용 및 통제정도에 따라 권위주의적, 권위적(민주적), 허용적 양육유형의 세 가지 양육유형을 제시하였다. 위의 각 학자들이 주장한 양육차원이나 유형은 다소 다르나, 양육행동의 두 가지 주된 차원은 Rollins와 Thomas(1979)가 지적하였듯이 ‘지지’(support)와 ‘통제’(control)라고 볼 수 있다.

‘지지적’ 양육행동은 대체로 온정, 수용, 반응성, 민감성 등 비교적 단일한 구성요소로 개념화된 한편, ‘통제적’ 양육행동은 강압, 처벌, 거부, 죄의식유발, 제한, 감독 등 ‘처벌-강압적’ 양육,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 등의 내용이 뒤섞인 복잡한 구성요소로 개념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양육행동 각 차원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차원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하여 전반적인 ‘지지’나 ‘통제’ 점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육행동차원의 개념화로 인한 문제점이거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비 일관적인 결과로 인해, 양육행동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상황-특수적인 맥락

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ark & Cheah, 2008). 예를 들어, ‘온정성(warmth)’과 ‘반응성(responsiveness)’으로 개념화되는 ‘지지적’ 양육행동은 사회적인 능력과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왔으나, Davidov와 Grusec(2006)는 부모의 ‘온정성’이 초등학생의 또래적응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감정이입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고통에 대한 반응성’은 또래적응과는 관련이 없는 대신 감정이입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지지’ 행동의 세분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복합적인 구성요소를 지닌 ‘통제적’ 행동의 경우는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함에 따른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부모의 ‘통제’를 단일차원으로 연구할 경우,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이 비 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단일차원 대신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행동에 늘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는 ‘행동적 통제’는 외현화행동의 감소 등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는 반면, 아동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심리적 통제’는 내현화문제 등 부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arber, 2002; Barber, Stoltz, & Olsen, 2005; Steinberg, 1990; Stoltz, Barber, & Olsen, 2005). 위 연구들은 양육행동차원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양육행동을 총체적(Global)으로 측정하기보다는 해체하여 측정하는 세분화(domain specific)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정한 양육유형(Chao, 1994; Darling & Steinberg, 1993; Park & Cheah, 2008)이나 각 차원의 구성요소(Bugental, 2000; Davidov & Grusec, 2006; Gray & Steinberg, 1999;

Goldberg, Grusec, & Jenkins, 1999)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자아욕구가 강한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양육행동차원인 ‘심리적’ 통제(Collins, 2005)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조된(Steinberg, 1990) 이래,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심리적’ 통제 행동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여왔다(예 : Barber, 1996). 그러나 위에 기술한 관점에서 보면 ‘행동적’ 통제는 당연히 ‘심리적’ 통제와 구별되어야 하며, ‘행동적’ 통제나 ‘심리적’ 통제 자체도 그 구성요소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 Goossens(2006)은 ‘심리적 통제’를 단일차원으로 보는 대신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별되는 구성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과보호하는 부모나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나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부모들이 심리적 통제행동을 많이 한다는 이론들(Barber, 2002; Blatte, 2004)에 근거한다. 한편,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발달에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Soenens et al., 2006; Soenens & Vansteenkiste, 2007), 그들의 주장이 입증된바 있으며, 현재 유럽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가지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아동을 심리적으로 조정하려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죄의식을 유발하거나, 애정절회적 행동 또는 자녀와의 애착이나 유대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행동으로 표현된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행동을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구분한 Soenens 외(2006)에 의하면, ‘분리불안’ 심

리적 통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행하게 되는 심리적 통제행동이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간섭적인 행동을 하며 아동에 대해 소유욕(Barber & Harmon, 2002)과 과보호행동(Holmbeck, Johnson, Wills, Mckernon, Roleweek, & Skubic, 2002)을 나타낸다. 또한 Blatte(2004)의 주장에 의하면, 부모의 분리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스스로 독립적이 되는데 대한 두려움이 강해진다. 결과적으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분리불안’ 태도를 길러주게 되며 자녀를 의존적이 되게 한다(Wood, 2006).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의존성’간의 정적관계는 어머니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경우 청소년의 기능적인 독립성이 낮게 나타난 이지인과 박성연(2008)의 연구결과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족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게 되고 그에 따라, 가족원간에 적절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가족원간의 경계가 모호한 가족(enmeshed family)으로 발전되기 쉽다(Barber & Buehler, 1996; Green & Werner, 1996).

이와는 다르게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태도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 및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Flett, Hewitt, MacDonald, & Oliver, 2002; Kenney-Benson & Pomerantz, 2005). 즉,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부모 및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에서는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요구하게 되며, 자녀의 성취정도가 자신이 기대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녀에게 죄의식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간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완벽주의적 태도와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 간의 정

적인 관련성은 완벽주의 어머니가 애정철회를 하거나 죄의식을 유발하는 행동, 또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행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결과(김희영·박성연, 2008)로도 뒷받침된다. 위의 고찰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부모는 아동에게 자율성을 조장하기 보다는 아동을 통제하는 양육을 한다. 또한 자녀를 온정적으로 수용하거나 자녀의 요구에 반응적이기 보다는 비 반응적이며, 지지적인 대신 비난을 많이 하고, 죄의식을 유발하거나 조건적 관심을 주는 식으로 아동을 통제한다. 따라서 특히 부모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하는 경우는 가족원간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한편,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하는 경우는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세부적인 양육행동측면(domain-specific parenting)인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Soenens 외(2006)가 제안한 심리적 통제척도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그들의 타당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과 Soenens(2008)는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각기 다른 경로(‘의존심’과 ‘자아비난’)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가 서로 다른 특성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와 요인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분석을 통해 심리적 통제의 2개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심리적 통제 두 가지 유형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P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류층 가정¹⁾의 청소년 289명(남학생 : 134명, 여학생 :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은 고등학교 1,2학년생으로 평균연령은 16.12($SD=.72$)세이며, 연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47.20($SD=3.13$)세와 44.46($SD=3.00$)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 외에도 심리적 통제척도의 두 가지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외적 준거척도로 일반적 양육행동척도와 가족분위기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청소년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행동 척도는 각각 같은 문항내용을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

심리적 통제척도는 Soenens와 Vansteenkiste

1) 청소년들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기초한 것으로 박성연 외(2008)의 일부자료를 이용하였음.

(2007)가 개발한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DAPC)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 보고용으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SPC : Separation-anxious Psychological Control)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APC :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의 2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에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문항은 부모에게 의지하기를 바라는 정도와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 부모가 나타내는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문항은 부모의 높은 기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부모가 나타내는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행동의 예로는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을 어머니(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내신다'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어머니(아버지)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신다' 등을 들 수 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문항은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남보다 뛰어나야만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신다'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실수를 하면 실망스러워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나타낸다.

Soenens와 Vansteenkiste(2007)가 보고한 심리적 통제행동 2개 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alpha=.86$, $\alpha=.83$ 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alpha=.93$, $\alpha=.91$ 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를 사용한 국내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각

각 $\alpha=.86 \sim .92$ 로 나타났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각각 $\alpha=.85 \sim .90$ (박성연 외, 2008; 이지인 · 박성연, 2008)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생이 보고한 어머니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문항의 신뢰도는 $\alpha=.81$ (김희영 · 박성연, 2008)이었다.

2) 양육행동척도

심리적 통제 두 가지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준거척도로 사용하기 위한 양육행동척도는 Soenens와 Vansteenkiste(2007)이 구성한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반응성',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지지'요인의 총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지지/반응성'요인은 Schaefer(1965)의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ventory(CRPBI)중 지지와 반응성에 관한 문항 중 7개 문항을, '심리적 통제' 요인은 Barber(1996)의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PCS-YSR)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율성 지지' 요인은 Grolnick, Ryan과 Deci(1991)의 Autonomy Support Scale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Scale(POPS) 중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위의 양육행동 각 요인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은 그동안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어 그 타당도가 입증되어 왔다(예 : Beyers & Goossens, 1999; Soenens, Vansteenkiste, Lens, Luyc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지지/반응성' 문항의 예로는 '근심걱정을 어머니(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해주신다' 들 수 있으며, '심리적 통제'의 예로는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야단치실 때 지난날의 실수를 들추어 이야기 하신다' 등이다. '자율성 지지'의 예로는 '어머니(아버지)는 어떤 일에 대해 늘 내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려고 하신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반응성, 심리적 통제, 자율성 지지가 높음을 뜻한다. 한편, Soenens와 Vansteenkiste (2007)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지지/반응성',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지지' 요인의 신뢰도를 각각 $\alpha=.92$ 와 $.94$, $\alpha=.89$ 와 $.89$ 그리고 $\alpha=.86$ 와 $.88$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요인의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지지/반응성' 양육행동의 경우 $\alpha=.83$, $.82$ 이었고 '심리적 통제'는 $\alpha=.75$, $.67$,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은 $\alpha=.75$, $.77$ 이었다.

3) 가족분위기척도

심리적 통제 두 가지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준거척도로 Soenens와 Vansteenkiste (2007)의 가족분위기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분위기척도는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Enmeshment)와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는 Colorado Self-Report of Family Functioning Inventory(Manzi, Vignoles, Regalia, & Scabini, 2006)의 하위요인 'Enmeshment'요인 7문항으로, '완벽주의 가족분위기'는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중 2개 하위요인인 부모의 '기대'와 '비난'의 9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 문항의 예로는 '우리 가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떨어져 지내기가 힘들다'를 들 수 있으며,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의 문항 예로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원간 경계가 없고, 완벽주의 가족분위

기 높음을 뜻한다. 선행연구에서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와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의 문항신뢰도를 각각 $\alpha=.76$ 과 $.90$ 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alpha=.79$ 와 $\alpha=.67$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된 P시의 2개 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들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전달하였으며, 담당교사는 편리한 시간에 교실에서 집단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질문지는 배부 후 10일 이내에 총 350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93%) 양친이 계시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및 이상치(Outlier)²⁾가 있는 자료들을 제외하고 총 28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DAPC의 구성요소의 타당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구성요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통한 신뢰도 분석 및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구인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³⁾,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DAPC 2개 구성요소가 남·녀 청소년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일반적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

2) Z-score가 ± 3 이상인 경우를 극단치로 봄(배병렬, 2007).

3) 수렴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배병렬, 2007), 측정자가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냄(김계수, 2007).

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6.0과 AMOS 7.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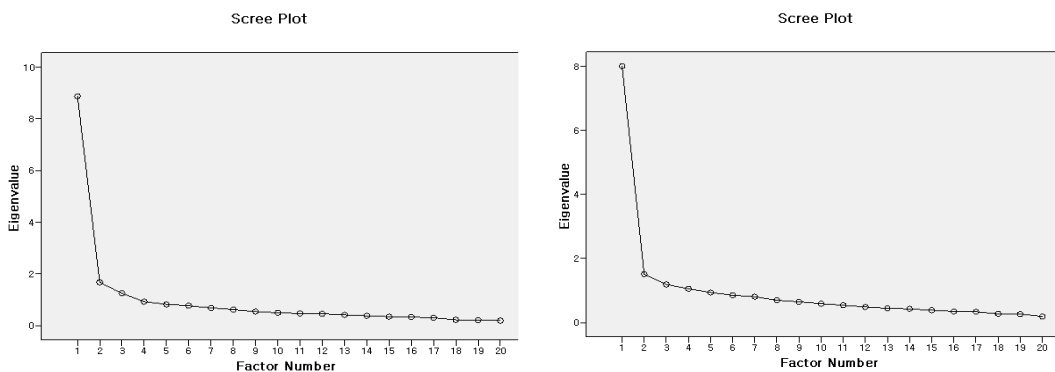
1. DAPC의 요인구성

청소년이 응답한 아버지에 대한 DAPC 20문항과 어머니에 대한 DAPC 20문항 각각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Scree Test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Eigen치가 1이상인 구성요소는 3개로 나타났으며 이 세요인은 각각 심리적 통제변량의 44.35%, 8.38% 그리고 6.23%를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Eigen치가 1이상인 구성요소는 4개로 나타나 이 네 요인은 각각 변량의 39.99%, 7.56%, 5.95% 그리고 5.28%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Scree Test 결과(<그림 1> 참조), 확실하게 아버지, 어머니 모두 2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는 한편, 두 개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회전방법은 Promax로 하였고, 요인추출방법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내용의 요약 목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요인모형인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이순목, 2000),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성취지향’ 심리적통제(APC) 10개 문항 중 아버지의 경우는 10개 문항 모두, 어머니의 경우는 8개 문항이 높은 요인부하량(>.40)을 나타내어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2개 문항(12번, 19번)이 부모 공통적으로 제외되었다. 한편 ‘분리불안’ 심리적통제(SPC) 10개 문항 중 아버지의 경우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APC)와 마찬가지로 10문항 모두가 높은 요인부하량(>.40)을 나타내었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9개 문항만이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어, 공통적으로 1개 문항(7번)이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항은 총 17개이며, 1요인인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8개 문항, 2요인인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SPC)는 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DAPC 척도의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9개 문항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8개 문항에 대



<그림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요인에 대한 Scree Plot

<표 1> DAPC의 요인구성 및 요인부하량

(N=289)

문항 내용	아버지		어머니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1. 부모님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냄	-.096	.700	.003	.529
2. 부모님은 내가 부모와 함께 즐기던 것을 더 이상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를 비난함	-.036	.734	.086	.561
3. 부모님은 내가 집을 떠나 아주 독립하게 된다면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도록 함	-.151	.682	.048	.503
4.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려 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냄	-.129	.632	-.188	.713
5. 내가 부모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면, 부모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함	.098	.651	.088	.731
6. 부모님은 내가 부모의 충고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행복해 함	.234	.488	.141	.607
7. 부모님은 내가 모든 것을 부모와 함께 할 때만 나에게 사랑을 보임	.146	.647	.306	.307
8.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부모는 내 문제에 간섭함	.049	.422	-.105	.636
9. 부모님은 내가 내 친구에게 의지하기보다 부모에게 더 의지할 때만 나에게 다정함	.080	.686	.131	.590
10. 부모님은 내가 부모의 방식대로 생각할 때만 행복해하심	.140	.670	.217	.517
11. 부모님은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나에게 덜 다정하게 대함	.531	.245	.426	.225
12. 부모님은 내가 실수를 하면, 실망스러워 함	.550	.116	.273	.289
13. 부모님은 내가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 나에게 관심을 덜 보임	.730	.004	.603	.182
14. 부모님은 내가 부족한 행동을 하면, 사랑을 덜 보임	.665	.129	.674	.121
15. 부모님은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심	.495	.233	.422	.203
16. 부모님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만, 나에게 사랑을 보임	.842	-.092	.755	-.110
17. 부모님은 내가 모든 것에서 최고일 때만, 나를 존중해줌	.811	.002	.885	-.116
18.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남보다 뛰어날 때만 나에게 다정하게 대함	.734	.085	.958	-.151
19. 부모님은 내가 높은 기대치를 달성하려고 애쓸 때 나를 더 인정해주심	.459	-.030	.180	.224
20. 부모님은 내가 시험을 잘 보았을 때만 나를 자랑스러워함	.820	-.259	.437	.084
Eigen Value	8.87	1.68	7.99	1.51
% of Variance	41.93	5.72	37.34	5.01
total	47.65		42.35	

주1) 1~10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문항; 11~20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문항

주2) 제거된 문항인 7, 12, 19번 문항은 아버지의 경우 각각 1요인과 2요인에 명확하게 포함되었는데 어머니의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이므로 같이 제거하게 됨.

해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각각 아버지의 경우 .865, .904, 어머니의 경우 .857, .873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2>. 또한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관계는 .444~.75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50 이상이었다.

3. DTPC 척도의 타당도 검증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DAPC 척도의 연구모형인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두 개 구성요소의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문항에 대해 2요인 모형으로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2 통계치와 함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NNFI)를 이용하는 한편, CFI 지수도 이용하였다⁴⁾.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위한 경쟁모형으로는 모든

<표 2> DTPC 척도의 기술 통계치 및 문항내적 일관성

(N=289)

	하위 척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하위척도상 관관계	Cronbach's α			
아버지 심리적 통제	분리 불안	pcf1	1.979	.829	.590	.865			
		pcf2	1.756	.760	.634				
		pcf3	1.731	.807	.525				
		pcf4	2.014	.920	.529				
		pcf5	1.664	.757	.660				
		pcf6	1.714	.763	.587				
		pcf8	2.297	1.025	.444				
		pcf9	1.622	.723	.682				
		pcf10	1.716	.811	.684				
		성취 지향	pcf11	1.731	.824		.676	.904	
	pcf13		1.774	.816	.704				
	pcf14		1.731	.824	.734				
	pcf15		1.823	.960	.632				
	pcf16		1.738	.783	.724				
	pcf17		1.664	.734	.759				
	pcf18		1.680	.720	.748				
	pcf20		1.982	.981	.562				
	어머니 심리적 통제		분리 불안	pcm1	1.958	.754	.486		.857
				pcm2	1.718	.732	.566		
		pcm3		1.632	.724	.496			
pcm4		2.366		1.015	.546				
pcm5		1.608		.709	.722				
pcm6		1.632		.705	.647				
pcm8		2.639		1.052	.513				
pcm9		1.667		.736	.625				
pcm10		1.526		.686	.601				
성취 지향		pcm11		1.638	.727	.528	.873		
		pcm13	1.655	.689	.696				
		pcm14	1.601	.734	.704				
		pcm15	1.809	.910	.515				
		pcm16	1.622	.768	.639				
		pcm17	1.431	.585	.707				
		pcm18	1.472	.623	.748				
		pcm20	1.955	.987	.460				

주) pcf : 아버지 문항 pcm : 어머니 문항

4) CFI와 TLI(NNFI)는 .90 또는 .95이상을 좋은 적합도 지수로 보며, 절대적 지수인 RMSEA는 .06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상당히 좋은 적합도로 보고 .08이하인 경우에 괜찮은 적합도로 판정된다(홍세희 2001).

문항들이 ‘심리적 통제’라는 1개 요인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1요인 모형으로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고 두 모형간의 χ^2 차이 검증을 하였다. 또한 표준적재치

<표 3> DAPC 척도 모형의 적합도 지수

(N=289)

		χ^2	df	CFI	TLI	RMSEA(LO90~HI90)
아버지	1요인(A)	550.429	119	.803	.775	.112(.103~.122)
	2요인(B)	219.284	108	.956	.945	.060(.048~.071)
	A : B	$\chi^2_{A-\chi^2_B} = 331.145$		$df_{A-df_B} = 11$		$p = .000$
어머니	1요인(A)	627.709	119	.801	.772	.122(.113~.131)
	2요인(B)	199.563	108	.958	.947	.054(.042~.066)
	A : B	$\chi^2_{A-\chi^2_B} = 428.146$		$df_{A-df_B} = 11$		$p = .000$

와 함께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및 분산추출 지수를 산출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구성타당도를 입증하는 한편, 다집단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를 검증하였다(김계수, 2007).

분석결과 연구모형인 2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버지의 경우 $\chi^2(108)=219.284$, $p<.001$; CFI=.956; TLI=.945; RMSEA=.060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chi^2(108)=199.563$, $p<.001$; CFI=.958; TLI=.947; RMSEA=.054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한편,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버지의 경우 $\chi^2(119)=550.429$, $p<.001$; CFI=.80; TLI=.775; RMSEA=.112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chi^2(119)=627.709$, $p<.001$; CFI=.801; TLI=.772; RMSEA=.122로 적합도 지수가 모두 기준치에 비해 나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으며 χ^2 값도 증가하였다. 또한 χ^2 통계치의 차이도 유의미하여(아버지 : $\Delta\chi^2=331.145$, $df=11$, $p<.001$; 어머니 : $\Delta\chi^2=428.146$, $df=11$, $p<.001$) 2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표 3).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측정변수의 모든 C.R(critical ratio)값이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든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 모형의 회귀계수(각 요인의 표준적재치)가 대부

분 0.5이상(아버지의 평균= 0.68, 어머니의 경우, 평균=0.65)이기 때문에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0.7 이상이어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분산추출지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도 확보되었다. 이외에도 <표 5>에서 보듯이 각 요인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 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 사이에는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도 확보되었다고 본다(김계수, 2007; 배병렬, 2007).

한편, 측정모형의 집단별 동질성을 검토하고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요인분석(Multiple Group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라 표준적재치 및 구조공분산이 다르다는 비제약 모형을 baseline모형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성과 관계없이 표준적재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 및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비제약 모형은 제약모형 및 구조공분산 모형과 유의확률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같은 모형으로 밝혀졌다. 즉,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모형($\Delta\chi^2=16.439$;

<표 4> 잠재요인과 측정변인의 표준적재치, 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 (N=289)

	잠재요인	측정변인	β	SE	C.R	p	구인 신뢰도	분산추출 지수		
아버지 심리적 통제	분리 불안	pcf1	.551							
		pcf2	.663	.107	10.279	.000				
		pcf3	.525	.129	7.175	.000				
		pcf4	.506	.130	7.815	.000				
		pcf5	.727	.136	8.897	.000	.905	.522		
		pcf6	.694	.134	8.657	.000				
		pcf8	.471	.160	6.637	.000				
		pcf9	.762	.132	9.131	.000				
		pcf10	.808	.153	9.395	.000				
		성취 지향	pcf11	.765						
	pcf13		.759	.140	8.70	.000				
	pcf14		.788	.136	8.728	.000				
	pcf15		.690	.141	8.855	.000	.925	.608		
	pcf16		.734	.153	8.304	.000				
	pcf17		.744	.109	10.096	.000				
	pcf18		.761	.110	9.469	.000				
	pcf20		.530	.121	8.742	.000				
	어머니 심리적 통제		분리 불안	pcm1	.470					
				pcm2	.594	.166	7.435	.000		
		pcm3		.561	.173	6.652	.000			
pcm4		.519		.210	7.097	.000				
pcm5		.800		.205	7.805	.000	.897	.501		
pcm6		.750		.196	7.621	.000				
pcm8		.514		.242	6.321	.000				
pcm9		.689		.195	7.359	.000				
pcm10		.722		.187	7.502	.000				
성취 지향		pcm11		.625						
		pcm13	.771	.151	6.781	.000				
		pcm14	.800	.162	7.390	.000				
		pcm15	.598	.177	7.482	.000	.916	.583		
		pcm16	.638	.184	6.652	.000				
		pcm17	.713	.139	7.893	.000				
		pcm18	.790	.130	7.159	.000				
		pcm20	.450	.149	7.448	.000				

<표 5> 요인간 상관관계와 분산추출지수 (N=289)

	1	2	3	4
1. 아버지의 분리불안	.522^{a)}			
2. 아버지의 성취지향	.667***	.608^{a)}		
3. 어머니의 분리불안	.488***	.446***	.501^{a)}	
4. 어머니의 성취지향	.409***	.547***	.654***	.583^{a)}

^{a)}=분산추출지수, ***p<.001

<표 6> 다집단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N=289)

	모형	χ^2	df	CFI	TLI	RMSEA(LO90-HI90)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모형A ^{a)}	404.513	216	.930	.912	.055(.047~.063)
	모형B ^{b)}	420.951	231	.929	.917	.054(.045~.062)
	모형C ^{c)}	421.856	234	.930	.919	.053(.045~.061)
	포화모형	2958.041	272	.000	.000	.185(.179~.192)
	A : B	$\chi^2_B - \chi^2_A = 16.439$		$df_B - df_A = 15$		$p = .354$
	A : C	$\chi^2_C - \chi^2_A = 17.343$		$df_C - df_A = 18$		$p = .50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모형A ^{a)}	379.441	216	.929	.910	.051(.043~.060)
	모형B ^{b)}	402.978	231	.925	.911	.051(.043~.059)
	모형C ^{c)}	404.061	234	.926	.914	.050(.042~.058)
	포화모형	2558.885	272	.000	.000	.171(.161~.177)
	A : B	$\chi^2_B - \chi^2_A = 23.537$		$df_B - df_A = 15$		$p = .073$
	A : C	$\chi^2_C - \chi^2_A = 24.620$		$df_C - df_A = 18$		$p = .136$

a)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측정 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 Measurement Weights)

c) 구조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모형(Constrained Model : Structural Covariance)

$df=15; p=.354$)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모형($\Delta\chi^2=23.537; df=15; p=.073$) 모두 측정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아, 집단 간 교차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제약모형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모형($\Delta\chi^2=17.343; df=18; p=.500$)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모형($\Delta\chi^2=24.620; df=18; p=.136$) 모두 요인 간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아, 집단 간 교차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앞서 고찰하였듯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분위기가 어떠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DAPC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타당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가족의 분위기와 관계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분위기 간의 단순상관관계와 부분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와는 정적상관을,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 및 지지/반응적인 양육태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심리적 통제유형을 통제된 부분 상관관계를 살펴해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통제의 두 유형 모두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표 7>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N=289)

	아버지의 분리불안		아버지의 성취지향	
	상관(<i>r</i>)	부분상관(<i>r</i>)	상관(<i>r</i>)	부분상관(<i>r</i>)
일반적 심리적 통제	.619***	.359***	.613***	.343***
자율성 지지	-.444***	-.201**	-.469***	-.259***
지지/반응성	-.133*	.089	-.296***	-.208***
경계가 모호한 가족	.186**	.157**	.99	-.038
완벽주의 가족	.331***	.102	.386***	.240***

p*<.05 *p*<.01 ****p*<.001

나타내었으며, ‘자율성지지’나 ‘지지/반응성’과는 대체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본 심리적 통제척도(DAPC)는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태도와 유사한 한편, 자율성 지지나 지지적인 양육 태도와는 개념적으로 상반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DAPC 척도의 수렴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한편 각각 다른 심리적 통제유형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 결과, 아버지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와만 유의미한 정적상관(*r*=.157, *p*<.01)을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 가족 분위기’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r*=.240, *p*<.001)을 나타내 심리적 통제 두 유형의 변별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역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와는 정적상관을,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지/반응성’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는 무관하였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만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각 다른 심리적 통제 변량을 통제한 상태인 부분상관관계에서도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여전히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와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자율성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율성지지 및 지지/반응성과 부적 상관을 보여, 대체로 DAPC 척도의 수렴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한편 부분상관관계 분석결과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는 여전히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와 유의미한 정적

<표 8>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N=289)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성취지향	
	상관(<i>r</i>)	부분상관(<i>r</i>)	상관(<i>r</i>)	부분상관(<i>r</i>)
일반적 심리적 통제	.250***	.459***	.287***	.079
자율성 지지	-.200**	-.331***	-.205**	-.168**
지지/반응성	-.085	-.057	-.146*	-.244***
경계가 모호한 가족	.166**	.131	.102	-.008
완벽주의 가족	.375***	.195**	.364***	.169**

p*<.05 *p*<.01 ****p*<.001

상관($r=.169, p<.01$)을 나타냄으로써 변별타당도가 입증된 반면, 예상과 달리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되어($r=.131, ns$)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oenens 외(2006)가 개발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DAPC)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을 둔 우리나라 부모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심리적 통제’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 우리나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 2)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통해 심리적 통제 두 가지 요인(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Soenens 외(2006)가 제안한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우리나라 부모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정신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개인이나 가족 모두 집합주의적,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Kim, Park, Kwon, & Koo, 2005).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는 특히 자녀가 점차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이 되어가는 데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는 한편,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커서 심리적 통제행동을 많이 나타낼 것이기에 심리적 통제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DAPC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청소년의 응답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후, 밝혀진 두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두 가지 구성요소가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에게서 같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행동 각각(즉 어머니에 대한 것과 아버지에 대한 DAPC 각 20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요인에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문항들이, 2요인에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과 부모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항을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1요인인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는 8개 문항이 그리고 2요인인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에는 9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선정된 DAPC 17개문항의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관계와 문항 내적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관계는 .444. ~ .759의 범위로 대부분이 .50 이상이었으며, 문항 내적 일치도는 .87~.90 범위여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DAPC가 2개 요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절대적합도 지수(χ^2 통계량, RMSEA)와 증분적합도 지수(CFI, TLI) 모두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은 절대적합도 지수와 증분적합도 지수 모두에서 나쁜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χ^2 차이 통계량으로 비교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각 요인문항의 표준적재치와 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가 기준치에 부합하여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외에도 다중집단 요인분석을 통해 남녀 청소년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척도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척도 모형은 비 제약모형과 제약모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하는데 있어 남녀 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인 DAPC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준거가 되는 척도로 ‘일반적 심리적 통제’, ‘지지/반응성’, ‘자율성 지지’의 세 요인을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척도와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와 ‘완벽주의 가족분위기’를 포함하는 가족분위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한편, 일반적 지지(반응성) 및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일 때 수렴타당도는 입증된다고 본다. 또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가족 구성원 간에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Enmeshment)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일 때 변별타당도가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Soenens et al., 2007).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과 함께, 공변량을 통제한 부분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각기 ‘일반적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율적 지지’와는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

다. 그러나 ‘지지/반응성’의 경우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더 일관적으로 ‘지지/반응성’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경계가 모호한 가족 분위기’ 및 ‘완벽주의 가족분위기’ 간의 부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는 예상대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한편,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 가족분위기’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 가족분위기’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한편, 예상과 달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 두가지 구성요소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모두 입증된 아버지의 경우와 달리, 어머니의 경우는 수렴타당도는 확보되었으나 변별타당도에서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변별타당도가 더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가 ‘경계가 모호한 가족분위기’보다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함께 완벽주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학업성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행동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변별타당도는 앞으로 더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 결과들은 유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oenens 외의 연구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 DAPC의 심리적 통제는 일반적인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Scale-

Youth Self Report : Barber, 1996)와 높은 정적 상관,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 Scale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scale : Grolnick, Ryan, & Deci, 199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수렴(convergent)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한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경계가 약한 가족(Enmeshment)분위기(Soenens & Vansteenkiste, 2007)와 완벽주의 가족 분위기(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Soenens, Eliot, Goossens, Vansteenkiste, Lutey, & Duriz, 2005)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가족 분위기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간의 정적 관계가 공변량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다르다. 특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더 확고하게 타당성이 입증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통제행동이 주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분석 결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이 ‘분리불안’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구성요소에 대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DAPC가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DAPC는 최근에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타당도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어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두 개 구성요소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른 부모의 양육행동 관련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된 의의가 있다. 첫째, 부모들의 일반적인 양육행동(민주적, 권위적, 허용적, 방임적)대신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행동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양육행동이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발달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통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적응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심리적 통제 중, 우리나라 부모들의 두드러진 행동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의 자녀의 독립에 대한 불안에 기초한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행동과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을 고려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행동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이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양육환경과 그로인한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계수(2007). Amos 7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출판사.
- 김희영 · 박성연(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3), 115-131.
- 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Soenens(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청

- 람출판사.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지인 · 박성연(2008). 어머니의 애착 경험,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이동학회지*, 25(6), 175-189.
- 홍세희(2001). 임상심리학의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 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Buehler, C. (1996) Family cohesion and enmeshment : different constructs, different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433-441.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pp.15-52).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t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Vol.70, 4, serial No.282.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No.1, Pt.2).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1, pp.169-208). NY : Russell Sage Foundation.
- Beyers, W., & Goossens, L. (1999). Emotional autonomy, psychosocial adjustment and parenting : Interactions,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2, 753-769.
- Blatte,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ugental, D. B. (2000). Acquisition of the algorithms of social life : A domain-based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26, 187-219.
- Chao, R.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ollins, A. (2005). Parsing parenting : Refining models of parental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In B. K. Barber, H. E. Stoltz, & J. A. Olsen(Eds.),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Vol.70, 4, serial No.282(pp.138-145), Boston.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avidove,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89-132), Washington, DC : APA.
- Frost, R., Heimberg, R., Holt, C., Mattia, J., & Neubauer, A.(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4, 449-468.
- Goldberg, S., Grusec, J. E., & Jenkins, J. (1999). Confidence in protection : Arguments for a narrow

- definition of attach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475-483.
- Gray, M. R., & Steinberg, L.(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587.
- Green, R. J., & Werner, P. D.(1996). Intrusiveness and closeness-caregiving : Rethinking the concept of family enmeshment. *Family Process, 35*, 115-136.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508-517.
- Holmbeck, G. N., Johnson, S. Z., Wills, K., McKernon, W., Rolewick, S., & Skubic, T. (2002). Observed an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 relation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 The mediational role of 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96-110.
- Kenney-Benson, G. A., & Pomerantz, E. M. (2005). The role of mothers' use of control in children's perfectionism :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73*, 23-46.
- Kim, U. Park, Y. S. Kwon, Y. E.,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54*, 3, 338-354.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Ed.) & E. M. Hetherington(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pp.1-101). New York : Wiley.
- Manzi, C., Soenes, B., Vignoles, V. L., Regalia, C., & Scabini, E. (2006). *Cohesion and enmeshment revisited : Family differentiation,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ree European cultur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SRA), San Francisco.
- Manzi, C., Vignoles, V. L., & Regalia, C. (2006). Cohesion and enmeshment revisited : Family differentiation,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wo European cultur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 673-689.
- Park, S. Y., & Cheah, C. (2008). *Concomitants and predictors of South Korean mothers' parent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ISSBD), Wuerzburg, Germany.
-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 Vol.1. Research based theories*(pp.317-364). NY : Free Press.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Cha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Boston, MA.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the source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 539-559.
- Soenens, B., Elliot, A. J., Goossens, L., Vansteenkiste, M., Luyten, P., & Duriez, B. (2005). The inter-

-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erfectionism :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s an intervening variab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358-366.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 Adolescent perception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 633-646.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pp.255-276).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Stoltz, H., Barber, B., & Olsen, J.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 1026-1092.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73-87.

2008년 12월 31일 투고, 2009년 2월 27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